

퇴직연금 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- 7.19.(금) 경향신문, “퇴직연금에 ‘밑빠진 독상’을” 오피니언 관련

2. 설명내용

- 퇴직연금 운용방식은 ‘계약 주체, 적립금 운용 주체 및 방식’ 등에 따라 계약형과 기금형으로 구분되며,

* **【계약형】**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관리 및 자산관리 계약을 맺고 사용자 또는 근로자 지시로 적립금 운용

* **【기금형】** 사업장과 별도로 독립되어 퇴직연금 운영·관리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수탁법인이 적립금을 수탁·운용

- 우리나라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계약형을 기본으로 하되, 최근 기금형 제도인 ‘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’을 도입('22.9월)하였고, 일본 등 해외 역시 계약형과 기금형이 병존하고 있어,

— 우리나라만 개인에게 운용책임을 맡긴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

- 상대적으로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은 지급받을 퇴직급여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‘확정급여형(DB)’ 제도를 선호하는 점, 적립금 운용 손실에 대한 위험회피 성향으로 원리금보장상품을 선택하는 점 등이 원인

- 이에 정부는 퇴직연금 제도 운용의 효율성과 수익률 개선을 위해 '22년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, '23년 디폴트옵션 신설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 중

- 그 결과 DB 적립금 비중 감소 및 DC/IRP 적립금 비중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, DC/IRP 가입자의 적극적인 적립금 운용에 따라 수익률 또한 상승 추세

* **【DB적립금 비중】** ('21) 58.0% → ('22) 57.3% → ('23) 53.7%

* **【DC/IRP 수익률】** ('21) 2.49% / 3.00% → ('22) △1.21% / △3.14% → ('23) 5.79% / 6.59%

- 특히,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을 통해 연 평균 수익률 10.8%*를 기록했으며, 30인 이하 근로자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입이 가능한 ‘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’도 '23년 수익률 7.0%를 달성함

* '24.1분기 말 기준 1년 이상 운용된 디폴트옵션 상품

☐ 한편, 제도의 성격이 상이*한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을 단지 수익률만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

* **【퇴직연금(DC/IRP)】**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가입 근로자가 본인의 책임으로 운용하고, 운용수익에 따라 퇴직연금의 지급수준이 결정되므로 수익률 뿐만 아니라 안정성 역시 고려해 운영하는 경향

* **【국민연금】** 납부액 운용수익과 상관없이 개인이 정해진 수준의 국민연금을 지급받으므로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운용이 가능

☐ 향후 정부는 퇴직연금 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퇴직연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음

담당 부서	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	책임자	과 장	이부용 (044-202-7554)
		담당자	사무관	신창모 (044-202-7557)

